

# “손실보전금 못 받았다면”... 23만 소상공인 확인지급 신청

중기부, 내달 29일까지 접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대상  
대상 따라 제출 서류 달라 '주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13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공동대표가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나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23만개사가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이날부터 시작해 오는 7월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이기 때문에 신속지급보다 손실보전금을 받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붙임)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❸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방법 안내문.

공동대표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지급한다.

또 비영리단체는 근거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다.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하거나 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엔 위임장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예상보다 금액이 적어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통해 더 받길 원할 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가 검토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늘었지만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지난해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하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이번 확인지급은 소진공이 신청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새벽 3시)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동대표 사업체(5만8000개)와 사회적기업(2000개)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한다”며 “매출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대·중기재단, 부산銀과 기업 대금결제 개선

상생결제 운영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 자금 조달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재단)과 BNK부산은행이 기업 간 대금결제 환경 개선에 나섰다.

대중기재단은 부산은행과 상생결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그 하위 협력기업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아야했던 영세 중소기업들이 부산은행의 상생결제제를 통해 저금리로 조기에 현금화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상생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BNK상생결제론’ 상품을 출시해 결제환경 개선에 나선다.

상생결제 도입 금융기관은 부산은행을 포함해 총 12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특히 부산·경남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호 기자

대기업 등 구매기업은 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생결제 상품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 등 거래기업은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약정이 가능하다.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과 수취는 상생결제 업무 전용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면 된다.

대중기협력재단 관계자는 “부산은행의 상생결제 운영을 통해 기업 간 결제환경 개선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보다 많은 거래기업들이 상생결제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약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기보, ‘2윈-브릿지’ 대·중기 기술협력 성과

DMI·한국진공야금 협약

기술보증기금이 대기업의 기술수요에 맞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기술거래·공동 연구개발(R&D)·전략적 제휴 중개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이끌어 냈다.

기보는 13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DMI), 한국진공야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기보가 운영하는 기업 간 기술거래·협력 시스템 ‘2윈(Win)-브릿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협력을 이룬 첫 사례다. /김승호 기자



(왼쪽부터)한국진공야금 문승호 대표, 기술보증기금 박준선 이사,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 이두순 대표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대기업의 기술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매칭하는데 있어 기보의 10만여개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DB)와 전국 영업점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다. /김승호 기자

## 한진, K-브랜드 해외진출 지원서비스 선포

맞춤 물류 서비스 설계·지원

한진이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바탕으로 K-브랜드의 해외 진출 지원 서비스인 ‘슌(Swoop)’을 새로 런칭했다.

13일 한진에 따르면 ‘슌(Swoop)’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패션기업 및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유수의 판매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과 함께 맞

춤 물류 서비스 설계·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안착을 돕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다.

서비스명인 ‘슌(Swoop)’은 신속하고 공격적인 느낌의 영문 ‘Swoop’과 전체 생태계를 아우르는 느낌의 한국어로 ‘슌’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이는 ‘유망한 K패션 브랜드들을 아울러 신속한 물류와 공격적 마케팅을 제공’한다



는 ‘슌(Swoop)’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한진 관계자는 “이번 해외진출 지원 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향후 K-브랜드들의 해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대표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휴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4회 연속 획득

2016년 첫 인증후 6년간 인증 성공

휴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4회 연속 획득했다.

13일 휴롬에 따르면 회사는 매년 CCM 활동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전사적인 CCM 가치 확산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통 강화에 대

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 첫 CCM 인증 이후 올해까지 6년간 총 4회 연속 인증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건강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휴롬’이라는 CCM 슬로건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념을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코로나19 확진 21주 만에 4000명 미만 /사진 뉴시스  
▲ 정부 “격리의무 해제때 ‘아프면 실권리’ 보장도 검토”

▲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 울산 자동차·신항·석유화학 물류 피해 지속  
▲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 경찰 44명 체포·2명 구속



▲ 우체국 택배도 18일 파업 예고... 노조, “노예계약서 철회하라” /사진 뉴시스  
▲ 엄마 따라姓 바꿨다... 대법 “모친 쪽 중중 구성원 된다”